

보수단체 5·18 폄훼집회 시민들 의연 대처

발언대 올라 대통령 욕설·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보수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이 광주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고 역사왜곡과 폄훼를 시도했다. 잡다 못한 일부 시민이 호통을 치기도 했지만, 1980년 5월 그날처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차분히 대응해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성향 단체 회원 1000여 명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고 '5·18유공자 가운데

들만 문제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시민은 집회가 열리는 맞은 편에서 '5·18진압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맞불 피켓을 들고 비폭력 1인 시위를 했다.

5·18 39주년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 등을 찾았던 시민들은 이들의 발언과 과격한 집단 행동을 불편함을 넘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보수단체의 집회를 지켜본 한 시민은 "광주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5·18을 모욕하고, 광주시민을 자극하는 행위를 멈추면 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3시간 정도 이어졌으며, 일부 시민들이 이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을 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날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와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했으며, 집회 현장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가짜 5·18유공자들이 광주지역 청년의 취업을 막고 있다. 광주의 어른들이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등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3시간 정도 이어졌으며, 일부 시민들이 이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을 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날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와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했으며, 집회 현장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가짜 5·18유공자들이 광주지역 청년의 취업을 막고 있다. 광주의 어른들이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등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9년만에 다시 마이크 잡은 '5·18 마지막방송' 박영순씨 문대통령 기념식서 위로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 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잊지 않아주세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진압작전 직전까지 방송을 했던 박영순(여·60)씨가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위해 39년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씨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1층 상황실 옆 방송실에서 계엄군이 시민군을 유혈 진압하기 위해 들이닥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군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당시 박씨는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계엄군이 발표하기 전 총을 쏘서는 안 됩니다"고 방송했다.

21살 여대생이었던 박씨는 5월 항쟁 기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학생 한명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5월 21일부터 시민군을 도와 가두방송에 나섰다.

마지막까지 도청 방송실을 지켰던 박씨는 계엄군에게 붙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내란 부화 수형이라는 생소한 죄목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6개월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광주를 떠난 박씨는 '5·18을 폭동'이라고 한 전두환 신군부의 왜곡 때문에 박수현이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다 지난 2015년 6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대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박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시 가두방송을 담당했던 박영순 씨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울광장에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유공자·시민 등 800여명 참석 5·18 기념식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서울시장 앞 서울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렸다.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주최로 18일 열린 행사에는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5·18 유공자들과 시민 등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80년 광주'를 추모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39년 전 이날을 기렸다.

오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기념식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18 민주화운동의 39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당시 분출된 민주

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는 7년 뒤, 6·10민주항쟁으로 되살아나 우리나라에 민주 헌정 체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찬탈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자유와 정의, 인권을 수호해낸 숭고한 투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살아있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최병진 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은 "5·18 민주항쟁 역사 왜곡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민의를 전담인 국회에서 지만

원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폭동'이라며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4번의 공식적인 조사가 있었음에도, 진실은 아직 묻혀있다"며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수사 및 처벌,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 등을 요구했다.

서울광장에선 5·18 민주화 운동 사진과 영상자료 등을 담은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 '백시운전사'와 다큐멘터리 '반성'도 상영됐다.

/연합뉴스

15살소년 김완봉·'꼬마상주' 영정주인공 조사천·고교생 안중필 문대통령 참배 열사 3인 '광주 아픔 상징'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완봉·조사천·안중필 열사 묘역을 참배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직후 김완봉(묘역번호1-18)·조사천(1-57)·안중필 묘역(2-41)을 차례로 참배하며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5·18 당시 무등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완봉(당시 15세)군의 어머니 송영도씨는 1980년 5월21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금남로를 나왔다가 도청 앞에 있는 학생·청년들에게 빵과 우유, 치약 등을 사다 달라"는 한 시민군의 부탁을 받는다. 송씨는 물건을 사서 도청 앞 청년들에게 건네주고, 진압군에게도 삶은 달걀 등을 나눠줬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없었다. 송씨는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어머니를 찾으러 도청에 나간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진압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발표가 시작된 오후 1시쯤이었다. 송씨는 옛 적십자병원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사인은 M-16소총에 의한 후두부 총상이었다. 자신이 달걀을 나눠준 계엄군이 아들을 죽였다는 생각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린 송씨는 제2

대 유족회장을 맡는 등 5·18희생자 명예회복에 투신했다.

조사천(당시 34세)씨는 전세계인들에게 5·18 아픔을 전한 '꼬마상주' 사진속 영정의 주인공이다. 조씨는 1980년 5월20일 광주교원대학교 인근에서 공수부대원에게 학생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시위에 참여한다. 이튿날 도청 앞에서 총탄에 맞은 조씨는 기독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3대 독자인 조씨는 빈소를 지켜줄 친척이 한 명도 없어 다섯 살 난 아들 천호군이 상복을 입고 '꼬마상주'가 됐다.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은 5·18의 아픔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진이 됐다. 문 대통령도 이날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 사진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사진이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광주상업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안중필(당시 16세)군은 1980년 5월19일 항쟁에 참여한다. 가족들은 "죽을 수도 있다"며 말했지만 안군은 "절대로 개죽음이 아니다"며 끝까지 투쟁에 참여했다. 안군은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 때까지만 시민군과 함께 했고 결국 진압군의 해 희생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안중필 열사 모티브 '마지막 일기' 기념식 식전 공연 시민군 느꼈을 두려움·슬픔 그대로 담아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식전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밴드그룹 블랙홀의 노래 '마지막 일기'가 주목받고 있다. 이 노래는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때 숨진 안중필(당시 고교1년)군의 사연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18일 5·18 기념식이 열린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일대에는 시작을 알리는 드럼 소리에 이어 강렬한 일렉트릭 너스 사운드와 서정적인 가사가 울려 퍼졌다.

음악을 연주한 그룹 블랙홀은 5·18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검은 정장에 검은 타이틀 메고 광장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이 공연에는 대학연합 합창단과 현악7중주가 참여해 더욱 감미로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호소하

듯 내뿜는 가사는 항쟁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고통학생 시민군이 느꼈을 두려움과 슬픔 등의 감정이 그대로 담겼다.

곡을 만든 밴드 리더 주상균 씨가 친구에게 5·18참상을 듣고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일기를 썼을 것'이라는 예술적 상상력을 가사에 담았다. 주씨는 "친구에게 들은 5·18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며 "이 내용을 언젠가 곡으로 곡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음악으로 부활한 주인공은 5·18 당시 광주상고(현 동성고) 1학년생이던 안중필(16) 군이다. 안 군은 시위에 나서지 말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쟁을 벌이다 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h1>임야</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점할 992㎡(300P), 지분 매매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사정상 급매할, 4,500만원(일시불) H. 010-6834-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투자 최고의 물건임 ▶ 인접 땅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광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출몰 1130㎡ 1억2천

교 환

- 광양군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 운암동 아파트지하 205㎡ 은행 8천 창고·사무실적합 1억9천

투자·매도·교환

- 광양군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 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양군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즙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k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우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동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남평읍 드들강 시설좋은 모텔 땅 2741㎡ 건평 1784㎡ (28실·식당) 다용도 가능 17억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펜션출몰 7억2천
- 광양군 송학동 땅 43278㎡ 사할있음, 남골당·복지시설 적합 15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펜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광양군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임야,담, 11만㎡,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산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매15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보전관리,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상 가

- 백운동, 2층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원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대지132㎡ 보2500만,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 아파트, 1층상가, 대로점, 330㎡,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남골당, 4동,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펜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외우리 농기주택 대지 575㎡ 주택106㎡ 올리모델링 매 1억4천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 중 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 큼 전세 8천만 포함 매1억3천만
- 소태동 무등산골드클래스, 112㎡, 6층 급매, 매 5억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 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

임야 단독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